

술의 신 바쿠스



박희수 피플 & 컬처 작가



〈젊은 바쿠스〉 1597년경, 캔버스에 유채, 95x85,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

술처럼 인생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술은 반복되는 일상에 즐거움과 활기를 선사한다. 술이 인생을 바꾸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술이 있었기에 비루한 현실을 견딜 수 있고 인생에 살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옛말’ 처럼 술이 넘치면 즐거운 인생이 후회와 자책으로 이어지게 한다. 술은 적당히 즐거운 기분으로 마셔야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술의 신은 바쿠스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포도나무 숭배를 관장했던 바쿠스 신은 가을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술에 취해 춤추는 추종자들을 거느린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바쿠스 신은 인간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신이기 때문에 서양화에서 바쿠스 신은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 앞에서 술에 취해 어울려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신의 모습보다는 인간의 모습과 가장

가깝게 그려진 작품이 카라바조의 〈젊은 바쿠스〉다.

이 작품에서 젊은 신 바쿠스는 오른손으로는 포도주 잔을 건네고 있다. 화면 왼쪽에는 포도주 병이 반쯤 비워져 있고 바쿠스 신의 머리는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관을 쓰고 있다.

바쿠스 신의 앞에 놓인 탁자에는 과일 바구니가 놓여져 있다. 과일 바구니에는 사과, 포도, 석류 등이 담겨 있다.

사실적으로 묘사한 과일 바구니에 담겨 있는 썩은 과일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당시 사과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과를 썩은 과일로 묘사해 종교적 규칙을 무시한 이 작품은 당시에 비판을 받았다.

이 작품에서 반쯤 비워져 있는 포도주 병 붙어진 신이 들고 있는 잔에 담긴 포도주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카라바조는 이 작품에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상징하는 바쿠스 신을 묘사했던 전통적인 표현방법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바쿠스 신을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과 손, 때가 낀 손톱 그리고 관능적인 입술과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묘사했는데 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술 취한 건강한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의 모델은 카라바조가 로마에서 함께 살던 화가 마리오 몬티나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카라바조의 이 작품은 청년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그의 초기작 중에 하나다. 로마에서 살았던 시기에 제작된 이 작품은 카라바조의 다른 작품과 달리 명암 대비가 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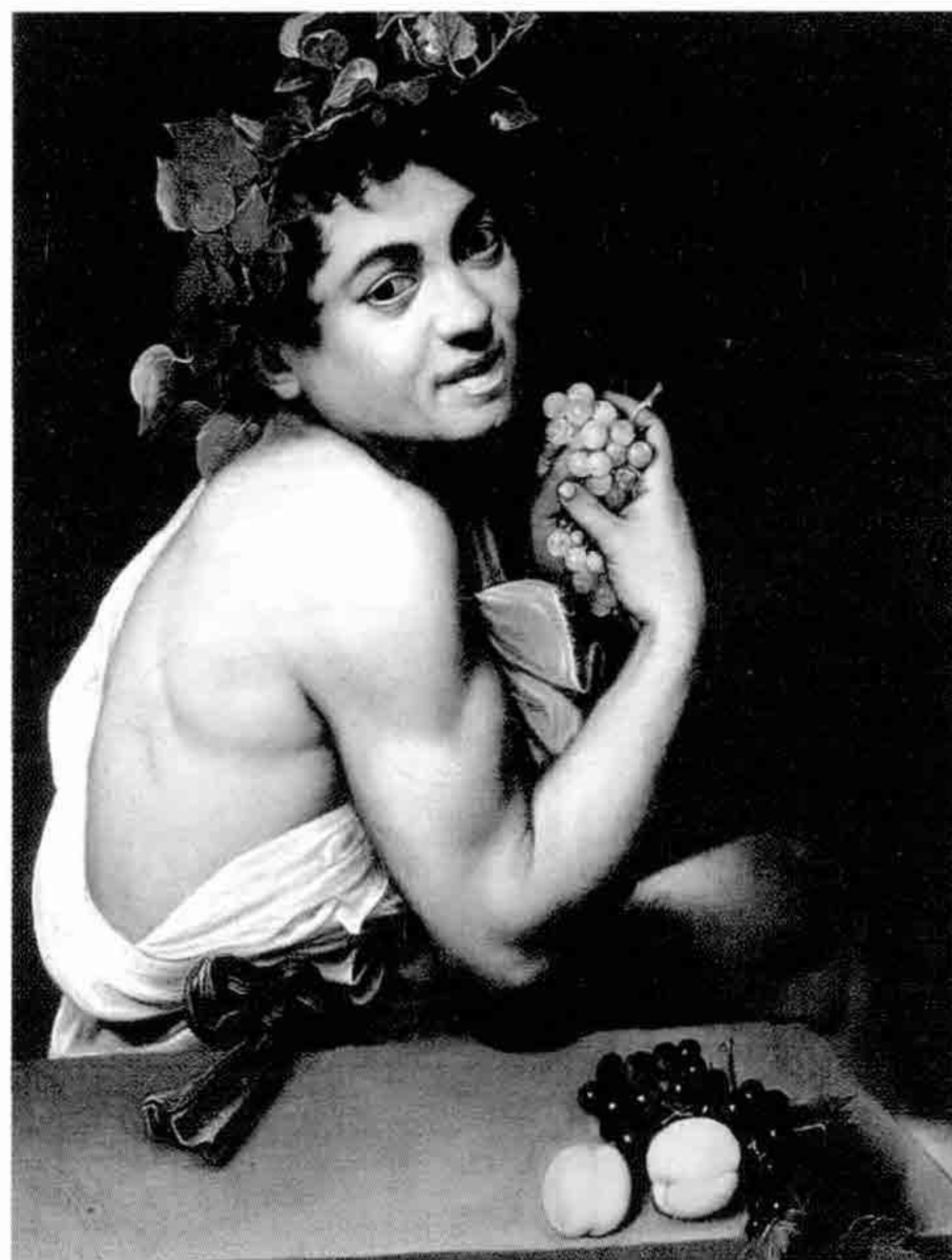
로마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있었던 카라바조는 돈이 필요해 화상 발랑탱을 찾아간다. 카라바조의 재능을 아낀 발랑탱은 돈이 급한 카라바조에게 예수의 생애를 다룬 종교화를 의뢰한다. 하지만 그가 건네준 것은 <젊은 바쿠스> 이 작품이었다. 관능적인 이 작품은 본 화상 발랑탱은 거절한다.

<젊은 바쿠스> 작품이 관능적이었다면 카라바조는 <병든 바쿠스>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다. 이 작품에서 카라바조의 자화상이다. 술주정뱅이였던 카라바조가 자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 할 수 있던 주제가 바쿠스 신이었다. 자신이 술주정뱅이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과음으로 육체가 망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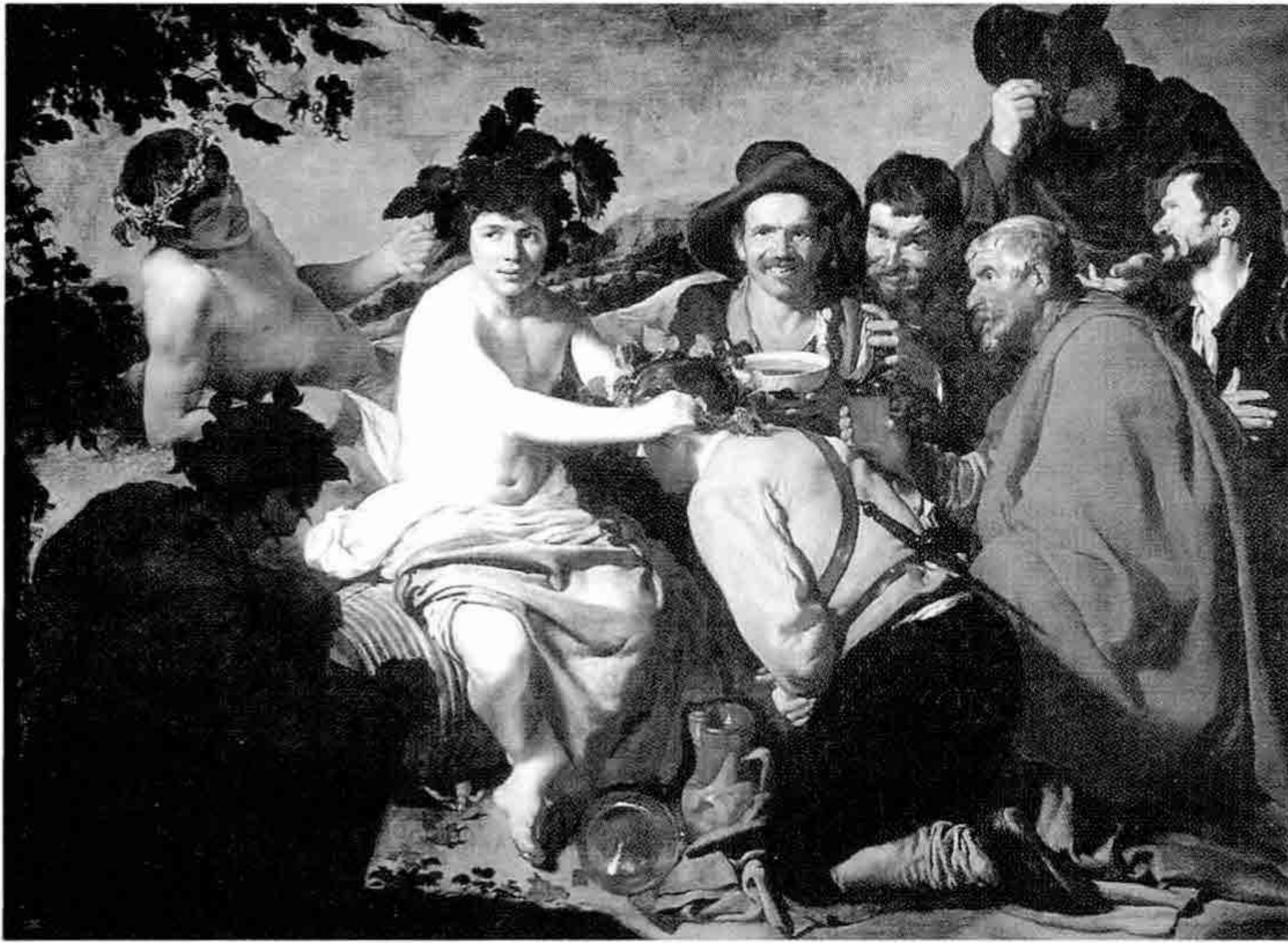
포도나무 화관을 쓴 바쿠스 신은 하얀 입술, 탁한 눈, 부어 오른 살, 창백한 안색은 병색을 드러내고 있다. 바쿠스 신은 포도 한 송이를 손에 쥐고 있지만 탁자에는 살구 두개와 포도 한 송이가 놓여 있어 바쿠스 신이 가단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카라바조는 후원자였던 추기경의 집을 나와 로마의 거리를 떠돌아 다녔다. 로마 시내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카라바조는 이탈리아 반도를 휩쓴 흑사병에 걸리게 된다. 여섯 달 간의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경험으로 카라바조는 과음으로 병에 걸린 바쿠스신을 그렸다.

카라바조(1571~1610)의 작품이 외설 시비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는 살인, 횡령, 동성애로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를 후원하고 있던 추기경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병든 바쿠스> 1593~94, 캔버스에 유채, 67x53, 로마 보르게세 미술관 소장



〈바쿠스〉 1628~29년, 캔버스에 유채, 165x227,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카라바조의 〈젊은 바쿠스〉에서 바쿠스 신을 풍만한 체구의 부유한 신으로 묘사했다면 바쿠스를 소박하게 표현한 작품이 벨라스케스의 〈바쿠스〉다.

당시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경건한 분위기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표현하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벨라스케스는 직설적이고 사실적으로 바쿠스를 묘사했다.

이 작품에서 바쿠스 신은 반라의 모습으로 야외에서 무릎을 꿇은 농부의 머리에 포도 덩굴로 엮은 관을 씌워주고 있고 다른 농부들은 바쿠스 주변에서 앉아 술잔을 들고 있다. 바쿠스 신에게 바쳐진 재물 물병이 발 앞에 놓여 있다. 농부들 받은 포도 덩굴 관을 씌워 주고 있는 바쿠스 신에게 경배를 들고 있고 농부 받은 술에 취해 흥겨워하고 있다.

모자를 쓰고 바쿠스 신 옆에 앉아 있는 농부의 모습은 이 작품이 평범한 젊은 농부들이 모여 야외에서 왕들의 대관식을 연출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바쿠스신의 상징인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화관을 아무렇게나 쓰고 포도주에 취한 채 농부에게 덩굴 화관을 씌워 주고 있는 모습도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보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바쿠스 신은 신의 대상이 아니라 농부처럼 묘사했으며 농부들 역시 현실속의 인물들로 표현했다. 술에 취해 유쾌하게 놀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은 이 작품이 카라바조의 〈젊은 바쿠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0)의 이 작품에서 바쿠스 신은 농부들의 힘든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술을 선사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초기작품으로서 펠리페 4세의 주문에 의해 그렸다. 벨라스케스는 그의 재능을 알아본 펠리페 4세의 때문에 궁정화가 된다. 그는 강력한 후원자로 국왕을 둔 덕분에 그림 외에 정치적 역량을 높였다.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벨라스케스는 이탈리아 미술을 찬미했지만 이탈리아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의 화가들과 달리 르네상스의 아카데미 규범을 결코 따르지 않았다. 그는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의 주제를 일상적인 방식으로 다루었다.